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5. 12. 9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은행, 석화업체 실사 착수…금융지원안 내년 초 윤곽

비즈워치 https://zrr.kr/apEeU7

석유화학업계 금융지원이 본격화… 채권단은 가장 먼저 자구책을 마련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실사부터 이달 중 시작
이번 금융지원을 시작으로 금융권은 석유화학업계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전망

진옥동 이어 빈대인 BNK금융 회장 연임 성공…경영 연속성 방점

이데일리 https://zrr.kr/c2PjBf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BNK금융그룹을 3년 더 이끌 예정
이사회 의장은 "리스크관리 기조 기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와 PF 부실 여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었다"고 배경을 설명

'AI 대전환 시대'…은행권, 데이터센터 건립·조직개편 속도

아시아투데이 https://zrr.kr/yisBnR

주요 은행들이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함께 관련 조직개편에 나서는 모습
다만 내년 금융권 AI 관련 거버넌스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필요성도 제기

'초고령화' 시대 본격화...유언대용신탁 은행권 새 먹거리 '부상'

파이낸셜포스트 https://zrr.kr/fhl1HQ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5대 은행이 새롭게 유치한 유언대용신탁 금액은 2조7328억원으로, 지난 2024년 한 해 신규 가입건수 2조1106억원보다 29% 증가한 수준
유언대용신탁 시장이 기존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고객까리 확대되며 은행권도 저마다 유언대용신탁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대폭 손질하며 경쟁력 강화에 분주

'10조 대어' 무신사 IPO 국내 대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맡는다

뉴시스 https://zrr.kr/txD4dO

새해 IPO 시장 대어로 꼽히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한국투자증권을 국내 증권사 중 대표 주관사로 낙점한 것으로 파악
PT에 국내 증권사 6곳과 외국계 증권사 5곳이 참여하는 등 이례적으로 많은 IB가 참여하며 무신사의 상장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는 평가

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현장점검 속도… 키움·하나도 착수

머니S https://zrr.kr/7DPqYX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의 해외투자 영업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
금감원은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순차 점검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

'의료쇼핑' 부추긴 1·2세대 실손 개편…"보험료·건보재정 부담 완화"

한국경제 https://zrr.kr/tbQPct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시스템 붕괴 진앙'으로 지목받는 '구세대 계약'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보험금' 차액만큼 보상받고 계약 해지 후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시 보험료 부담 경감, 과잉 의료 해소 등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

2천억 더 1.1조 베팅한 중국계 자본, 한화·흥국 제치고 이지스운용 인수

뉴스1 https://zrr.kr/Y0oKc5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낙점
당초 '한화 vs 흥국' 2파전이 유력했던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이 국내 보험사가 아닌 중국계 자본의 승리라는 의외의 결론으로 이어진 것

원화코인, 은행지분 50% 밑으로…핀테크 단계적 발행 허용도 검토

서울경제 https://zrr.kr/ehi2z7

금융 당국과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은행에 먼저 기회를 준 뒤 핀테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

'복붙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슷한 상품만 내는 이유

아시아경제 https://zrr.kr/zJNLub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 모으기' 같은 신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거래소가 이미 출시한 상품을 반복하는 수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부재로 신사업 진출이 막혀 있고 규제 장벽까지 높다 보니 서비스가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